

경향신문

[정동칼럼]현실적 북핵 대책은 현실서 나온다

이근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싱크탱크 미래지 원장

입력 : 2016.01.07 20:51:55 | 수정 : 2016.01.07 20:56:22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6일 수소폭탄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하였고, 수소폭탄의 소형화를 달성하였으며, 북한의 핵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였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전격적으로 단행한 핵실험이어서 놀라운 일이지는 하나, 냉정하게 보면 북한은 기왕에 하던 일을 계속해 온 것이다. 이번 핵실험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전 세 번의 핵실험이 없었던 것이 되지 않을뿐더러, 유엔 안보리의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멈출 것이라고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의 반응도 역시 기왕에 하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동북아가 요동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한미일 남방 삼각 대 북중러 북방 삼각의 신냉전 구도가 생겨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일본의 핵무장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 도입이 코앞에 왔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핵실험의 위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분석도 또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계속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북한을 옥하면서 또 살아갈 것이다. 혹자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북의 반발→핵실험 예고→핵실험이라는 기존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운반수단의 발사, 그리고 그 운반수단에 실을 향상된 핵능력 과시라는 점에서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잠수함에서 사출되는 SLBM을 쏘았고, 그게 유엔 제재를 불러오지 않았을 뿐이다. 즉 핵실험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규칙적인 리듬이 없을 뿐, 북한 핵실험은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었고, 북한이 보내고자 했던 시그널은 항상 동일하다. 위력적인 핵을 어느 곳이든 적지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잠수함 사출 운반수단과 핵의 다종화 소형화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동일한 패턴의 핵실험을 계속할까?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핵 억지(nuclear deterrence)라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답이 쉽게 나온다. 핵 억지는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우리를 전복시키려 한다면 너희도 죽게 되어있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는 핵과 운반수단이 있고, 그 핵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으면 (이를 2차 타격능력이라고 한다), 억지력이 생기는 것이다.



